

언어와 민요의 운율 자질에 관한 음향음성학적 연구*

-중부 방언과 경기 민요를 중심으로-

An Acoustic Study of Prosodic Features of Korean Spoken Language
and Korean Folk Song (Minyo)

구 희 산**

Hee-San K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coustic experimental study was to investigate interrelation between prosodic features of Korean spoken language and those of Korean folk songs. The words of Changbutaryoung were spoken for analysis of spoken language by three female graduate students and the song was sung for musical features by three Kyunggi Minyo singers. Pitch contours were analyzed from sound spectrogram made by Pitch Works. Results showed that special musical voices (breaking, tinkling, vibrating, etc.) and tunes (rising, falling, level, etc.) of folk song were discovered at the same place where accents of spoken language came. It appeared that, even though the patterns of pitch contour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 was positive interrelation between prosodic features of Korean spoken language and those of Korean folk songs.

Keywords: Prosodic Feature, Korean Folk Song, Spoken Language

1.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음향음성학적 실험을 통해 구어체 언어와 민요의 운율 자질간에 상관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구어체 언어는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전달 수단으로 소리의 높낮이(피치)를 포함하여 소리의 길이(음장)나 소리의 크기(강도)와 같은 운율 자질을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한다. 문어체 자체만으로는 화자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운율 자질을 복합적으로 잘 조합하여 구어체를 사용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민요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구어체 언어에 다양한 음악적 자질을 가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면 민요는 구어체 언어가 함유하고 있는 운율 자질에 음악적 운율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구어체 언어와 민요의 운율자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구어체 언어와 민요가 공히 인간의 발성기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음향 자질을 분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석하고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운율 자질을 분석하면 공통성이나 차이점을 확인하여 상관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와 민요의 운율 자질

일반적으로 구어체 언어의 운율 자질 연구는 조음적인 면을 비롯해서 청각적인 면과 음향학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데, 청차 쪽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피치, 음장, 강도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피치란 소리가 높고 낮음을, 음장이란 소리의 길고 짧음을, 그리고 강도는 소리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척도가 된다. 한편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음성 측정을 용도로 사용하는 음향학적인 용어로는 각각 기본주파수, 지속시간, 진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어체 언어의 운율자질과 민요의 음악자질을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므로 공히 운율자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1. 구어체 언어의 운율 자질 특성: 악센트와 억양

일반적으로 악센트라는 용어는 인용된 단어나 발화 단위 내에서 이웃 음절이나 단어보다 특정한 음향 성분이 더 뚜렷하게 표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악센트의 위치는 언어의 운율 특성에 따라 다르다. 거의 모든 언어의 현저한 악센트 음향 성분은 피치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 악센트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억양은 발화단위에 피치가 오르내림에 따라 만들어지는 피치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치곡선은 악센트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한국어 운율자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악센트: 단어 인용형에서 2 음절어는 문두와 문중에서 둘째 음절이 높고, 문미에서는 첫째 음절이 더 높다. 3 음절어에서는 문장의 모든 위치에서 둘째 음절이 가장 높다(구희산, 1995). 그리고 우리말 단어의 음절수는 주로 2 음절이나 3 음절로 구성되어있으나, 실제 발화는 조사가 붙어 4 음절에서 5 음절이 된다. 구절 단위에서는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와서 구절악센트라 부를 수 있는데, 문미에서는 첫째 음절이나 둘째 음절에 악센트가 온다(Koo, 1986).

나. 강조악센트: 강조악센트는 일명 '우세'라고 하는데 '초점'이나 '문강세' 등과 유사한 용어이며, 한 발화 단위 내에서 이웃의 악센트 받는 음절보다 더 높은 고저음 자질이 나타난다. 우리말에서 강조악센트는 주로 단어나 구절의 첫 번째 음절에 오나, 때로는 구절 마지막 음절에 와서 보통 말할 때 나타나는 구절악센트보다 피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구희산, 1990).

다. 음조: 음조란 음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생기는 피치곡선의 일정한 패턴이다. 억양의 기본 음조는 문두나 의문문에서는 '오름조', 문중이나 서술문에서는 '오르-내림조', 그리고 서술문이나 명령문의 문미에서는 '내림조'를 보인다(이현복, 1965; 구희산, 1992).

라. 억양구: 억양구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문장을 운율단위로 나누는 것을 일컫

는데 단어, 구, 절 또는 문장이 하나의 억양구가 될 수 있다. 억양구 분할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의미 정보를 나누는 단위가 된다. 그리고 억양구 분할은 의미와 통사구조와 관련이 있다(구회산, 1993).

- 마. 하강현상: 음조가 내려가는 하강현상은 일반적으로 기본주파수의 폭이 억양구의 첫 부분보다 끝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면서 차츰 낮아지는 현상이다. 하강현상은 단어강세가 없는 한국어 억양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다(Ko, 1988).

2.2. 민요의 운율 특성: 시김새

구어체 언어의 발화 단위 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운율의 특징은 악센트와 억양이라 할 수 있다. 민요의 발성법 특징도 일정한 음절, 단어 및 구절 단위에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장순, 2002). 이러한 발성법의 특징을 민요에서 '시김새'라고 한다. '통목'이나 '요성'이나 하는 용어들이 전통적인 시김새의 명칭이다(백대웅, 1982; 장사훈, 한만영, 1975 참조). 본 연구에서는 김장순(2002)에서 사용한 용어를 빌려쓰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음향음성학적 실험으로 확인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재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민요에 주로 나타나는 시김새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올림목: 급격히 밀어 올리는 소리나 점점 여리게 밀어 올리는 소리를 포함하여 올리는 형태는 모두 '올림목'이라 부르기로 한다. 올림목의 종류로는 '단계적 올리기', '고음 중성올리기', '점차 여리게 떨어 올리기'로 분류할 수 있다.
- 나. 내림목: 소리를 내리는 현상을 모두 포함하여 '내림목'이라 부르기로 한다. 내림목 종류로는 완만한-내리기, 급한-내리기, 꺾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갑작스레 푹 낮추는 소리를 '꺾는목'이라 한다. 본래 음보다 높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급격히 끌어내리는 현상은 주로 구절 끝의 동사구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구절의 초에서도 주격구의 첫 단어를 강조할 때도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구어체 언어에서 말하는 강조악센트 현상과 같은 것이다.
- 다. 평목: 특정한 음역에서 일정하게 소리를 길게 끄는 것을 '평목'이라 한다. 평목의 종류로는 고음-평목과 중음-평목이 있다. 경기민요에서 저음-평목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저음-떨림목이 사용되고 있다.
- 라. 떨림목: '떨림목'이란 서양음악이나 판소리에서 말하는 '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떨림목의 종류에는 '고음-크게 떨기', '저음-크게 떨기', '저음-작게 떨기', '올림-떨기'로 구분할 수 있다.
- 마. 튀는목: 소리를 평목으로 내다가 순간적으로 위로 튀어나오는 소리를 '튀는목'이라 하는데 튀는 목도 민요에서 특징적인 발성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바. 방울목: '방울목'이란 인상적인 표현으로 '구슬 같은 방울 소리'라고 하는데, 음향학적으로 방울목은 음파가 둥글둥글하게 나타나서 진폭이 거의 일정하게 반복되는 심한 굴곡을 나타내고 피치곡선도 위아래로 주기적인 선을 보인다.
- 사. 파는목: '파는목'은 아래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목소리라 하는데 이런 표현도 역시 소리를 듣고 느끼는 인상적인 표현 방법인 것 같다. 아마도 소리를 성도 하부에서 내는

소리라 할 수 있다. 피치곡선이 위쪽으로 살짝살짝 반복해서 튀어 오르는 현상이다.

- 아. 파성: '파성'이란 깨어진 징 소리같이 부서져 나오듯 갈라지는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음향학적으로는 피치곡선이 완전히 깨지면서 갑자기 위 아래로 퍼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여 보았지만 이외에도 더 많은 종류의 용어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민요의 종류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용어도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처럼 구어체 언어나 민요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소리이기 때문에 동일한 측정 척도(피치, 음장, 강도, 피치곡선)를 사용할 수 있다. 구어체 언어의 악센트와 억양은 물론이고 민요의 시김새도 피치곡선의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피치, 음장, 강도 및 피치곡선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운율 자질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기로 한다.

3. 실험 방법

3.1. 실험 자료

본 실험에서 사용될 자료는 경기 민요 중 가장 널리 불려지는 '창부타령'을 선정하였다.

<창부타령의 가사>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섬섬옥수(를) 부여잡고 만단정회 어제런 듯, 조물이 시기를 하여 이별될 줄 누가 알리, 이리 생각 저리 궁리 생각 끝에 한숨일세, 알밋고도 아쉬웁고 분하고도 그리워라, 아픈 가슴 움켜잡고 나만 혼자서 고만일세, 오호 한평생 허무하구나 '인생백년이 꿈이로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3.2. 피실험자

구어체 운율 자질 실험을 하기 위해 경기지역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대학까지 교육을 마치고 대학원에 재학중인 여학생 3 명(A그룹: J, K, L)을 피실험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민요 운율 자질 정보를 위해 중부방언지역에서 태어나고 경기민요를 전공하는 경기 민요 가수 3 명(B그룹: K, L, Y)을 피실험자로 선정하였다. L은 경기민요 중요무형문화재 제 57 호이며, K는 경기민요 제 57 호 전수교육보조자이고, Y는 경기민요 제 57 호 이수자이다. 그들은 20년 이상 경기민요 전문 예능인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3.3. 분석 방법

피실험자 A그룹은 실험자료 '창부타령' 가사를 세 번씩 낭독체로 읽어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실험자 B그룹은 '창부타령'을 세 번씩 부르게 하여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을 하고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구어체 운율 자질은 A그룹 피실험자들의 낭독체를 모두 스펙트로그램으로 만들어 피치, 지속시간, 진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민요 운율 자질은 B그룹 피실험자들의 노래를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 피치곡선을 분석하였다. 구어체 운율의 특정한

자질이 악센트 위치에 나타난 민요 자질을 확인하여 피치패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피치곡선을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주파수, 지속시간, 및 진폭을 측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Pitch Works를 사용하였다.

4. 분석 및 토의

4.1. 구어체 운율 자질의 특징

표 1에서 구어체 언어의 운율 자질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창부타령의 가사를 구나 절 별로 구분하여 각 구의 음절 단위에 나타난 운율 특징을 표시하였다. 각 음절을 피치, 음장, 강도, 피치곡선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피치는 가장 높은 음절을, 음장은 가장 긴 음절을 그리고 강도는 가장 강한 음절을 문자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치곡선은 고저음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여 ‘하강조’는 \, ‘상승조’는 /, 그리고 ‘평조’는 →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였다. 구어체 운율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치: 각 구나 절에서 두 번째 음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 마지막 구절에서는 약간의 예외적인 것으로 첫 음절이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

둘째, 음장: 구나 절의 마지막 음절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셋째, 강도: 특정한 위치의 음절에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피치곡선: 절의 마지막은 모두 하강조(\)로 끝났다. 그러나 구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강한 정서를 표시하는 감탄 구는 상승조(/) 또는 평조(→)를 보였다.

이와 같은 운율 자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1)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와서 피치가 가장 높고, (2) 구절의 마지막 음절이 가장 길고, (3) 피치곡선은 구절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달라서 주격구나 목적격구 또는 감탄구는 상승조 또는 평조를 보이고 동사구는 하강조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유사하여 민요 자질을 기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창부타령의 구절별 운율 자질

실험자	B J W	B J W	B J W	B J W
가사	아 니	아 니	늘 지 는	못 하 리 라
피치	니 니 니	니 니 니	는 는 는	하 하 하
음장	니 니 니	니 니 니	는 는 늘	라 라 라
강도	아 아 아	아 아 아	지 늘 늘	라 라 라
피치곡선	↗ ↗ ↗	↗ ↗ ↗	↗ ↗ ↗	↘ ↘ ↘
	섬 섬 옥 수 를	부 여 잡 고	만 단 정 회	어 제 련 듯
피치	섬 섬 섬	부 여 여	단 단 단	제 제 제
음장	를 를 를	고 고 고	회 회 회	련 련 듯
강도	섬 를 섬	여 고 고	단 만 단	듯 어 어
피치곡선	→ → ↘	↘ ↘ ↘	→ ↘ ↘	↘ ↘ ↘
	조 물 이	시 기 를 하 여	이 별 될 줄	뉘 라 알 리
피치	이 물 이	시 기 시	별 별 별	라 라 라
음장	이 이 이	여 여 여	별 줄 줄	라 리 알
강도	물 이 이	여 여 여	별 별 별	라 라 알
피치곡선	↗ ↘ →	↘ ↘ ↘	↘ ↘ →	↘ ↘ ↘
	이 리 생 각	저 리 궁 리	생 각 끝 에	한 숨 일 세
피치	리 생 리	리 리 리	각 생 생	숨 한 한
음장	리 리 리	리 리 리	에 에 에	세 세 세
강도	각 각 각	저 저 저	각 각 각	세 세 세
피치곡선	↘ ↘ →	↘ ↘ ↘	↘ ↘ ↘	↘ ↘ ↘
	알 밍 고 도	아 쉬 읊 고	분 하 고 도	그 리 워 라
피치	밋 밋 밋	쉬 쉬 쉬	하 하 분	리 그 리
음장	도 도 알	고 고 고	하 도 도	라 라 라
강도	알 알 고	아 고 고	하 하 도	라 라 워
피치곡선	→ → →	↘ ↘ ↘	→ ↘ →	↘ ↘ ↘
	아 픔 가 숨	음 켜 잡 고	나 만 혼 자 서	고 먼 일 세
피치	픈 픈 픈	켜 켜 켜	혼 혼 만	민 민 민
음장	픈 숨 숨	고 고 고	서 만 서	세 세 세
강도	가 가 아	잡 고 고	나 서 서	세 세 세
피치곡선	→ → ↗	↘ ↘ ↘	→ → →	↘ ↘ ↘
	오 호 한 평 생	허 무 하 구 나	인 생 백 년 이	꿈 이 로 다
피치	호 한 호	무 허 무	생 생 생	꿈 꿈 꿈
음장	생 호 호	나 나 무	이 이 이	다 다 다
강도	한 호 오	나 나 무	생 년 생	다 도 다
피치곡선	→ ↘ ↘	↘ ↘ ↘	→ → ↘	↘ ↘ ↘
	일 씨 구	절 씨 구	지 화 자 총 네	
피치	씨 씨 구	씨 씨 절	화 지 자	
음장	구 구 구	구 구 구	네 네 자	
강도	일 일 일	절 구 절	네 자 화	
피치곡선	→ ↘ ↗	→ ↘ →	↘ ↘ ↘	
	아 니	늘 지 는	못 하 리 라	
피치	니 니 니	지 지 늘	하 하 하	
음장	니 니 니	는 는 늘	라 라 하	
강도	아 아 아	지 늘 늘	하 라 하	
피치곡선	↗ ↗ ↗	↘ ↗ ↗	↘ ↘ ↘	

4.2. 민요 운율 자질(시김새)의 특징

4.2.1. 두 번째 음절에 나타난 시김새 종류

가. 파성: '파성'이 나타난 위치는 피실험자 L의 '분하고도'에서 두 번째 음절 '하'이다. 구어체 언어에서도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운율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현상은 너무 강하게 발생하다가 생긴 목갈리는 소리로 민요의 시김새 중에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그림 1 참조). 파성은 판소리에서 흔히 사용하는 발성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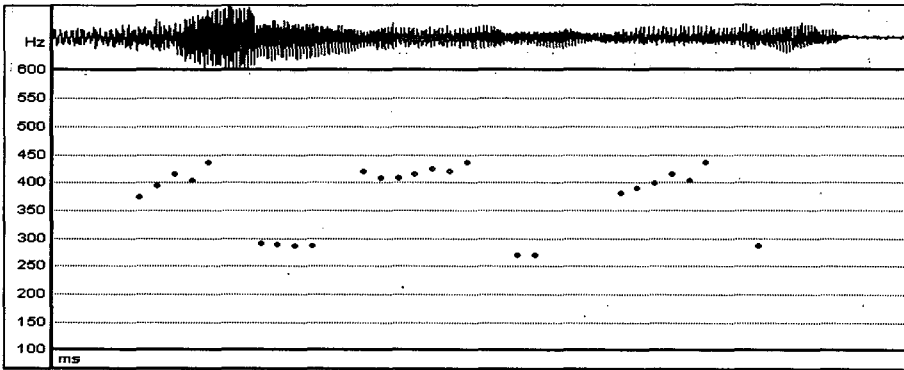


그림 1. 파성 (L: 분하고도)

나. 평목: 평목은 일정하게 길게 내는 소리로 피실험자 K, L, Y에게서 공히 '아니'의 둘째 음절 '니'에서 발생되었다(그림 2). 평목의 종류로는 고음, 중음, 저음에서도 가능하나 저음에서는 저음 떨림목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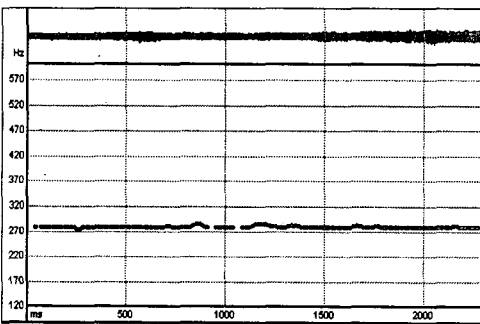


그림 2. 중음-평목 (L: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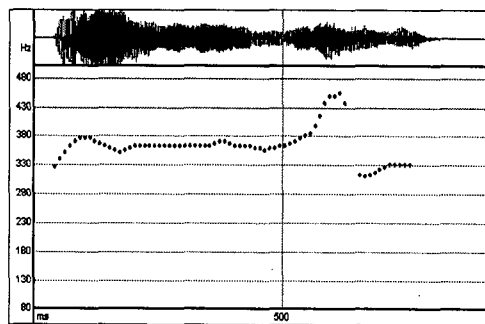


그림 3. 고음-울리기 (Y: 알땀고도)

다. 울림목: 울림목이란 소리를 끌어올리는 형태로 피실험자 Y의 '알땀고도'의 둘째 음절 '땀'에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이외에도 Y의 '만단정회'에서도 두 번째 음절에 울림목이 나타났다.

라. 방울목: 방울목이란 '구슬같은 방울 소리'라고 하듯이 음파가 방울 모양으로 된 고리처럼 나타나고 피치곡선 모양도 위아래로 굴곡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형태는 피실험자 K의 '아쉬웁고'의 둘째 음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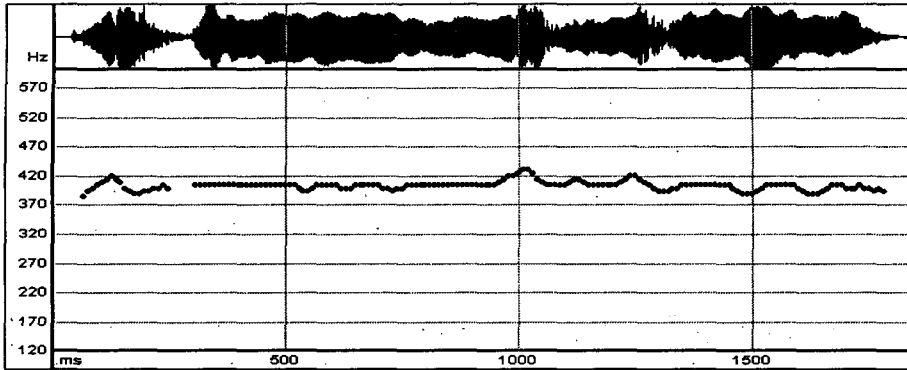


그림 4. 방울목 (K: 아쉬웁고)

4.2.2. 마지막 음절에 나타난 시김새 종류

가. 평목: 평목은 주로 주격구나 목적격구의 끝 음절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고음 평목으로 나타난다. 피실험자 K의 '섬섬옥수를'에서 마지막 음절 '를'에서 확인된다(그림 5 참조). 그리고 '조물이'의 '이'에서도 발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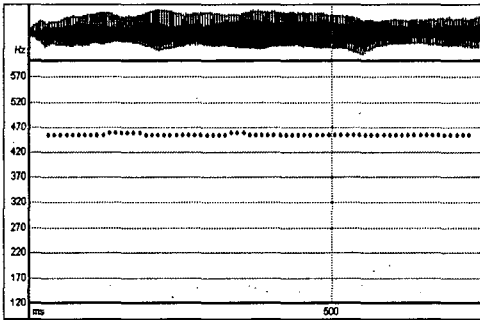


그림 5. 고음-평목 (K: 옥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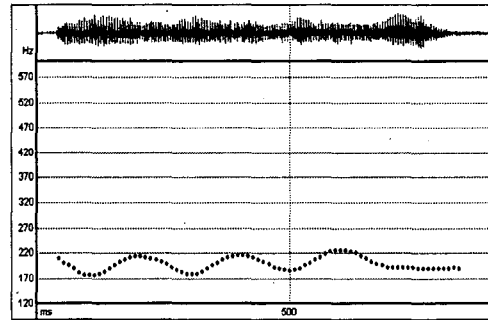


그림 6. 저음-떨기 (Y: 꿈이로다)

나. 떨림목: 떨림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마지막 음절에서 나타난 것은 저음-떨기가 피실험자 K의 '꿈이로다'의 마지막 음절에서 발생되었다(그림 6 참조). 그리고 피실험자 Y의 '아니'의 '니'음절에서도 나타났다.

다. 튀는목: 튀는목은 소리를 평목으로 내다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소리로 본 실험에서 나타난 튀는목은 네 군데서 찾아볼 수 있었다(피실험자 L의 '섬섬옥수' (그림 7 참조); 피실험자 K의 '조물이', '한평생', '그리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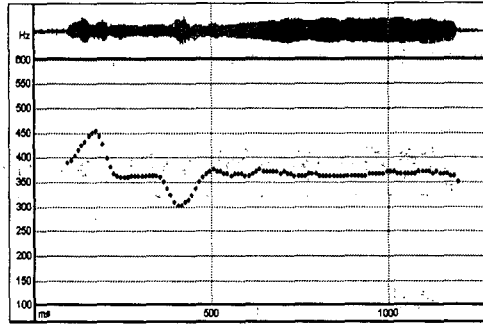


그림 7. 위-아래로 튀기 (L: 섬섬옥수)

4.2.3. 강조구문에 나타난 시김새 종류

가. 내림목: 내림목은 절의 마지막 구(주로 동사구)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구절의 첫 단어를 강조할 때는 내림목이 형성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피실험자 K의 '조물이'(그림 8 참조), '이리 생각', '저리 생각'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동사구 '시기를 하여'도 매우 높은 음역에서 시작한 점으로 보아 강조구문으로 보아야 한다. 보통 구어체 언어에서는 '조물이' 구가 상승조 형태가 되어 마지막 음절 '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시기를 하여'에서는 '시기를'이 목적격 구로 역시 '를'이 가장 높게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 부분이 강조가 되어 오히려 조사인 '이'와 '를'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면 강조구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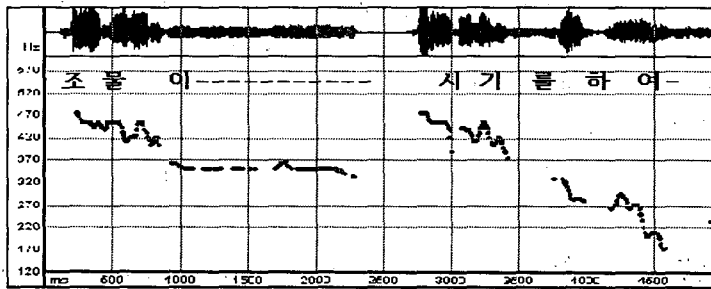


그림 8. 내림목 (K: 조물이; 시기를 하여)

나. 평목: 강조를 표현하는 고음-평목은 피실험자 K의 '섬섬옥수를'에서 확인되었다(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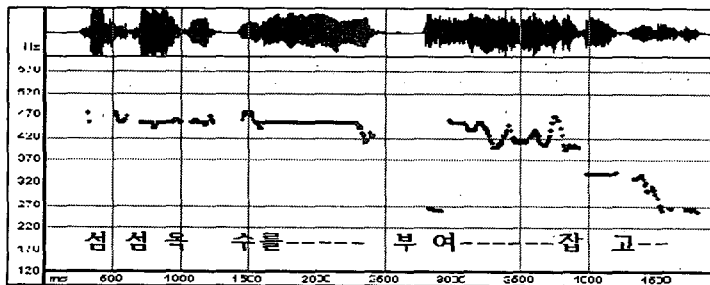


그림 9. 고음-평목 (K: 섬섬옥수를)

다. 올림목: 또 한 가지 감탄구에 나타난 현상은 '끌어올리기'라 할 수 있는데 K의 '얼씨구', '절씨구', L과 Y의 '만단정회'(그림 10 참조)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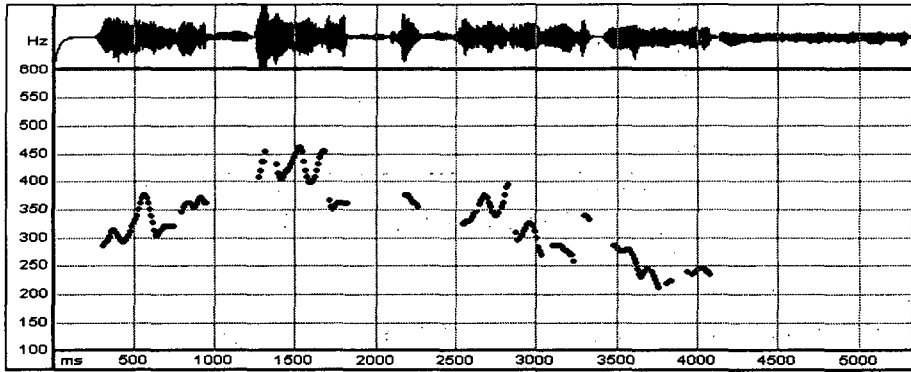


그림 10. 떨어-올리기 (L: 만단정회)

이외에도 5.1.1과 5.1.2에서 확인된 '튀는목', '방울목', '파는목', '파성' 같은 시김새들도 강조 구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4.2.4. 마지막 구절(동사구)에 나타난 시김새 종류

내림목: 올림목 다음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내림목은 여러 번 나타났다(피실험자 모두에서 '부여잡고'(그림 11 참조), '시기를 하여', '움켜잡고', '허무하구나'(그림 12 참조). 내림목은 대체로 구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음절부터 끝음절까지 이어져서 하강조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림목 현상은 떨어목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에서는 계단식으로 뚝 떨어진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일명 '깎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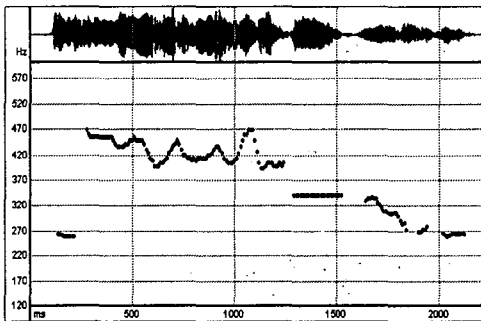


그림 11. 내림목(깎기) (K: 부여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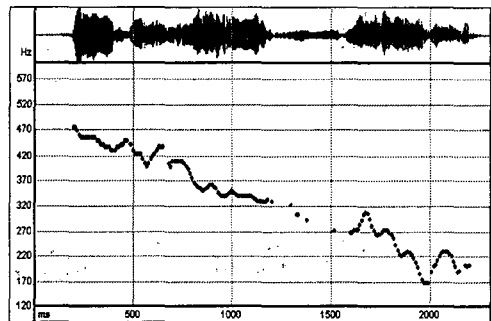


그림 12. 내림목 (K: 허무하구나)

지금까지 구어체 언어와 민요의 운율 특징을 음향 자료로 확인하였다. 구어체 언어의 운율 특징과 민요의 특징을 비교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오는 구어체 언어처럼 민요에서도 두 번째 음절에 다양한 시김새가 나타난다.

둘째, 구어체 언어에서 구절의 마지막 음절이 가장 길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 민요에서도 마찬가지로 떨림목이나 평목이 가미된 점이 다르다.

셋째, 구어체 언어에서 강조악센트는 구절의 첫 음절이나 두 번째 음절에 오는데, 민요에서도 강조하는 구절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음절에 다양한 형태의 시김새가 나타난다. 강조를 의미하는 시김새 종류로는 내림목, 평목, 떨림목, 올림목 등이다. 이외에 떨림목, 튀는목, 방울목, 파는목, 파성 같은 시김새도 주로 구절의 두 번째 음절이나 마지막 음절에 나타났다.

넷째, 절의 마지막 동사구는 구어체 언어와 민요에서 공히 하강조로 확인되었다.

5. 결 론

지금까지 구어체 언어와 민요의 운율 자질의 특성을 음향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의 운율 자질은 밀접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체 언어의 악센트가 오는 두 번째 음절에 대부분의 민요 시김새가 나타났다.

둘째, 구절악센트가 오는 구절의 마지막 음절에 민요의 시김새가 나타났다.

셋째, 구어체 언어에서 강조악센트는 구절의 첫 음절이나 두 번째 음절에 오는데, 민요에서도 강조하는 구절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음절에 다양한 시김새가 나타났다. 강조 구절의 시김새는 내림목, 평목, 떨림목, 올림목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떨림목, 튀는목, 방울목, 파는목, 파성 같은 시김새도 결과적으로 강조를 나타내는 시김새의 종류라 할 수 있다.

넷째, 구어체 언어와 마찬가지로 민요도 절의 마지막 동사구가 하강조로 나타났다.

다섯째, 구어체 언어의 피치곡선은 상승조, 하강조, 및 상승하강조로 단순한데 비해 민요의 피치곡선은 파성을 비롯해서 파는목, 떨림목, 튀는목 등과 같이 다양한 시김새 형태가 가미되어 발생되었다.

결론적으로 구어체 언어와 민요의 운율 자질이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구어체 언어의 운율 특징인 악센트의 위치와 운율 자질에 대한 기존의 기술을 다시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민요는 구어체 언어에서 발전한 음악 형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민요의 시김새 연구에도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 연구는 제한적인 자료로 일반화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확대된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구희산. 1990. "표준한국어의 운율 특징에 관한 고찰." *응용언어학*, 3, 53-64.
- [2] _____. 1992. "억양패턴 분석 방법." *음성통신 및 신호처리*, 9, 51-58.
- [3] _____. 1993. "음성인식과 합성을 위한 운율분석." *HCI 93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1. 93-100.
- [4] _____. 1995. "영어와 한국어 낱말 운율의 음성학적 연구." *응용언어학*, 8, 123-139.

- [5] 김장순. 2002. 한국민요 발성법의 음성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백대웅. 1982.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구조. 대광문화사.
- [7] 이현복. 1976. "한국어 억양." 언어연구, 1, 131-43.
- [8] 장사훈, 한만영. 1975. 국악개론. 한국국악학회.
- [9] Lee, H. B. 1964. *A Study of Korean (Seoul) Intonation*. M.A. thesis. Univ. of London.
- [10] Ko, Do-Heung. 1988. *Declarative Intonation in Korean: An Acoustical Study of Fo Declination*. Diss. Univ. of Kansas.
- [11] Koo, Hee San. 1986. *An Experimental Acoustic Study of the Phonetics of Intonation in Standard Korean*. Diss. Univ. of Texas at Austin.

접수일자: 2003. 7. 31.

게재결정: 2003. 8. 29.

▲ 구희산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우: 156-756)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Tel: +82-2-820-5394

E-mail: hskoo@cau.ac.kr